

광주 서구 '주정차 단속 무마' 진상 파악 나섰다

광주 서구가 공무원 직원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를 무단 삭제해 공무원·구 의원 등이 과태료 면제 특혜를 누린 것과 관련해 자체 진상 규명에 나섰다.

22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구 감사담당관실은 주정차 단속 주무부서인 교통지도과로부터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1월까지 3년여 간의 주정차 위반 단속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감사담당관실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해당 자료에서 주정차 단속 무마 관련 경위와 배정 등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

다만 지난달부터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관련 감사를 벌이고

감사담당관실, 최근 단속 자료 확보·사실 확인 중
각급 공무원·구 의원 연루 의혹 나오며 '일파만파'

“자체 감사 아니다...후속 조치 성실히 이행할 것”

있는 만큼, 중복 감사가 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사실 관계 등을 파악하는 수준이라고 서구 관계자는 밝혔다.

앞서 서구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원 직원 6명은 지난 2018년부터 3년여 간 주정차 위반이 적발된 본인·가족·지인 명의 차량의 단속 자료를 임의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 자료 삭제를 통해 과태료 처분

을 면한 차량 228대 중 80여 대는 증거사진 불충분·중복 단속·번호판 인식 오류 등의 이유로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공무원 직원들에게는 업무상 전산시스템 내 단속 자료 삭제 권한 자체가 없어 직무를 벗어나는 행위를 했다.

공무직 직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단속 무마를 부탁한 이들 중에는 직급

을 가리지 않고 5급부터 9급에 이르기까지 공무원도 다수 포함돼 있다. 전·현직 구 의원도 다수 거론되고 있다.

퇴직 공무원 중에는 고위급 인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 무마를 청탁한 공무원·정치인의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는 모양새다.

다만 일부 공무원·구 의원 등은 의견 개선 심의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거쳐, 감면 사유가 충분히 소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부정이 싹튼 배경으로는 공무원 직원들이 직무를 넘어선 전산시스템상 단속 자료 삭제 권한을 남용할 수 있었던 구조적 맥락과 함께 공직사회 안팎에 만연했던 기강 해이가 짙



광주 서구청 전경.

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과태료 부과 업무상 부정 행위가 확인됐다. 전산 체계 상 허점을 보완해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했지만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공식 감사는 아니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받는대로 권고 처분을 성실히 이행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신봉우기자

“15년 넘은 김치냉장고 화재 주의”...광주 3년간 32건 중 30건

1명 인명피해·2억여원 재산피해



지난 20일 광주 북구 동림동에서 발생한 김치냉장고 화재현장.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김치냉장고 화재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광주지역에서 김치냉장고 화재가 32건 발생해 1명의 인명피해와 1억93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이 중 30건이 15년이 넘는 구형 김치냉장고였다.

실제로 김치냉장고 화재는 구입한 지 15년이 넘는 구형 냉장고에

서 주로 발생했다.

최근 5년간 화재 추이 분석 결과 김치냉장고의 장기사용에 따른 릴레이 부품 트래킹현상 등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북구 동림동에서 발생한 화재도 구입한지 15년이 넘는 구형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해 거실 등이 소실됐고, 주원인은 기계적 요인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11월 북구 교화에서도 기

계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구형 김치냉장고 화재로 17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 표준원에서는 화재 우려가 높은 김치냉장고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리콜조치는 지난 2일부터 시행했으며, 대상 제품은 2005년 9월 이전 생산된 모델이다.

이에 김치냉장고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점검이나 관리 등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10년 이상 노후 된 김치냉장고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고 사용하고 벽과 10cm 이상 간격을 두고 습하지 않은 곳에 설치해야 하며, 반드시 연결된 콘센트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인 청소 및 최소 3년에 한 번은 김치냉장고 뒷면을 열어 먼지를 제거해야 한다.

김영돈 시 방호예방과장은 “김치냉장고의 경우 새 제품을 구매할 땐 한 김치냉장고를 폐기처분하지 않고 발코니(베란다) 또는 다용도실 등에 두고 다목적 냉장고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김치냉장고는 4면의 외함이 단열재로 시공돼 화재 시 다량의 유독성 연기가 발생해 인명피해 위험이 매우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선욱기자



‘식어버린 불판, 얼어버린 자영업’

22일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 중고매입 상점에 식당용 중고 불판이 쌓여있다. 이날 한 중고매입 상점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식당 폐업은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창업은 줄어든다. 이 코로나19 초기보다는 중고 물품 거래는 늘고 있다”고 밝혔다.

나주시 ‘밤샘주차 화물차’ 내년 1월부터 과징금 부과

나주시가 내년 1월부터 공영차고지를 벗어나 밤샘주차를 일삼는 화물차 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22일 나주시에 따르면 단속은 영업용 차량 면허발급 시 신고한 차고지가 아닌 도로변, 공터 등에서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밤샘 주차를 한 화물·여객용 차량이 대상이다.

적발되면 ‘화물자동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 정지 3~5일’ 또는 ‘10~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다.

그간 나주시는 밤샘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 계도 활동을 펼쳐왔지만 불법 주차가 개선되지 않자 집중 단속에 나서게 됐다.

불법 밤샘주차 차량에 의한 운전자가 시야 방해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과 아파트·주택가 등 인구 밀집 지역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앞서 나주시는 화물차 밤샘 주차로 인한 고질적인 주민 민원 해소를 총

186억원을 들여 지난해 6월 ‘나주 청동 4번길’에 화물차공용차고지를 준공했다.

부지 4만9083㎡(1만4847평) 규모의 차고지는 특대형 18면, 대형 198면, 소형 125면 등 주차면 341면과 차량정비 시설, 세차장, 체력단련실, 샤워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대형화물차는 한 달에 5만원, 소형 화물차는 2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기동취재본부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민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